



5월 2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불자들이 점등식 후 탑돌이를 하고 있다.

광주 봉축탑 점등식 봉행... 본격 일정 들어가

광주전남지역 봉축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탑 점등식이 봉행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중심사 주지)는 5월 2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연광 스님,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 등을 비롯해 광주지역 사찰 주지스님, 신도대표, 불교단체 대표 등 불교지도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광주전남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한 봉축탑은 화엄사4사자3층 석탑을 한지를 재료로 형상화해 높이 20m

의 크기로 만든 탑이다. 이날 점등한 봉축탑은 오는 27일까지 밝혀질 예정이다.

행사는 1부 점등식과 2부 사찰음식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석부회장 보은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오늘 봉축탑의 세워지는 이곳은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을 앞두고 있고, 5·18민중항쟁이 일어난 역사적 장소"라며 "화엄사4사자3층석탑을 이곳에 세운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문화는 과거에서 현재로 통하는 하나의 흐름이며, 지역을 벗어나 세계와 공유하는

역사적 관계"라며 "올해에는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있다. 광주와 전남도민, 그리고 불자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다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고향의 마음을 전하고, 호남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점등식에 이어 봉축탑과 5·18유적지 중 하나인 분수대 주변을 도는 탑돌이 행사가 진행됐다. 또 빛고을자연사찰음식체험관에서 마련한 사찰음식만찬이 진행됐다.

이날 점등식은 광주전남지역의 새로운 기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체 일로에 있는 광주전남 불교계는 점등식과

화엄사 4사자석탑 한지로 형상화

봉축행사를 계기로 지역불교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앞장선다.

봉축기획단장 시각 스님은 "점등식에 이어 오는 5월 16일부터는 광주공원 앞에 위치한 광주천에서 '견우와 직녀의 생명이야기'를 주제로 60여 개의 전통등을 전시한다"며 "본 행사는 5월 23일 오후 1시부터 광주공원에서 빛고을 찾자리 경연대회 및 시연회와 청소년문화페스티벌, 체험행사(연꽃등 만들기, 전통등 만들기, 단주만들기, 아시아문화체험) 20여 가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하이라이트는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되는 관동법회와 제등행진, 관동음악회"라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에 탈핵영화 공동상영회 개최

한국사회의 핵발전소의 위험을 알리는 영화제가 광주에서 개최됐다. 광주전남불교연합연대(상임대표 법일)는 5월 12일부터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들과 공동으로 탈핵영화 공동 상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영회는 도심 주변에 24기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30km 권내 인구 밀집도가 전 세계 1위인 한국의 상황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 부품비리 등 핵발전소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경각심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영화제는 밀양아리랑(5월 12일, 장소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잔인한 내림(5월 26일, 장소 동구 산수동 선덕사), 후쿠시마의 미래(6월 9일, 장소 서구 금호동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7월7일, 장소 북구 일곡동 빛고을아이쿱생협) 등 탈핵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작품이 무료로 상영된다. 매 상영 후 '이야기 마당'이 준비되어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4회에 걸쳐 실시되는 영화 상영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부에서 후원하고 광주전남불교연합연대가 주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외국인복지센터 쌀나누기 행사 진행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5월 3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비의쌀은 금전사, 비전사, 연화사에서 후원한 쌀로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캄보디아 심터(지구촌 휴), 네팔공체 심터 등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와 이룬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에게 전달됐다.

전달식에서 비전사 주지 보혜 스님은 "자비의 쌀은 절에 다니는 신도들이 자신들의 소원을 담아 부처님에게 올린 쌀을 여러분에게 보시한 것"이라며, "한국생활에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달식을 진행한 이주성 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하루3식의 식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스스로 하루 한 두 끼를 해결해야하는 것을 보고 사찰에서 후원하는 쌀을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는 매년 사찰에서 1,000kg 이상을 후원받아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에 쌀 나누기를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원 선국사, 제1회 의승병문화제

4월 26일 뇌묵당 처영 대사 등 의승병정신 기려

임진왜란 당시 뇌묵처영대사 등 의승병들이 남원성을 사수하기 위해 왜군과 전투를 벌였던 남원 교통산성 선국사(주지 희권)에서 4월 26일 제 1회 교통산성 의승·의병 문화제가 열렸다.

교통산성 내에 자리잡고 있는 선국사에서 열린 이번 의승병 문화제는 전주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을 비롯한 남원지역 스님들과 이환주 남원시장, 박문화 남원시의회 의장 등 300여 대중이 동참했다.

교통산성 의승병 문화제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승려의 신분임에도 전투에 나선 뇌묵당 처영대사 등 의승병들의 나라정신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문화제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의승병에 대한 묵념, 조총, 현다, 현화, 제문낭독, 추도사, 진혼무, 추모곡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제에 이어 의승병 체험, 교통산성 밭기, 조선시대 갑옷입어보기, 활쏘기, 투



호놀이, 제기차기 등의 전통문화체험마당도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중들은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의승군의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백제시대부터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산성은 산세가 매우 가파르고 성안에 우물이 99개나 있어 유사시 주민이 대피하기 좋은 천혜의 요새지로 평가받았다. 임진왜란 당시 뇌묵처영대사등 승병들이 수축하여 300여명의 의승군이 주둔하며 왜군과 맞서 싸운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오월은 푸르구나' 어린이 큰 잔치 열어

전북불교계 5월 5일 힘모아,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제도 함께 진행

93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라북도 불교계가 어린이들을 위한 큰 잔치를 열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 덕진공원에서 어린이 큰 잔치를 개최했다.

어린이들의 자연친화적인 사고력을 개발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일깨우기 위해 준비한 이날 어린이 잔치는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부로 나뉘어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등이 진행됐다. 가족단위로 참가한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은 푸짐한 선물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냈다.

전북불교회관 어린이 법회 회원인 박보현 어린이(11살, 전주시)는 "평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림 대회에 참가했다"며 "푸짐한 선물이 받고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어 즐겁기만 하다"고 말했다.

덕진공원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는 어린이들의 숨은 장기를 뽐낼 수 있는 경연의 장도 펼쳐졌다.



춤, 노래, 악기 연주 등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와 신나는 레크리에이션으로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무대에서는 어린이 판소리 공연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디밴드 '휴먼스'의 공연이 열려 덕진공원을 가득 메운 1천여 가족단위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편 오후에는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전주행사가 개최됐다. 남고사 주지 원혜 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들과 김백호 전북 불교신도회장, 주정기 포교사단 전북지역 단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중고, 개교기념 수계대법회 봉행

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금산중·고등학교(학교장 조영석)가 학교설립 68주년(금산중)과 60주년(금산고)을 맞아 개교 기념식과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4월 30일 체육관에서 열린 개교기념식에서 학교법인 동국학원 사무처장 종민 스님은 "전북의 농촌지역에 설립된 금산중, 고등학교를 설립한 선각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부처님의 높으신 말씀에 따라 덕을 쌓아 농촌지역의 교육경쟁력으로 건학이념의 뜻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교 기념식에 이어 열린 '2015 수계대법회'에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수계를 받았다. 법회에서는 삼귀의, 반야심



경봉독, 꽃 공양을 시작으로 개도, 참회, 연비 등으로 진행됐다. 전계화상인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대신해 사무처장 종민 스님이 전계사로 나섰다. 이어 중학생 78명, 고등학생 77명을 포함해 161명이 수계를 받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하며, 나만의 완성세계 기반상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 기반상

수련할때까지 안정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 기반상

기반상 완성도와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www.hyunbulshop.com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적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향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격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